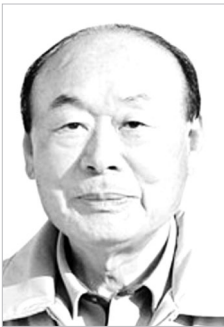


GGM, 내년 전기차 생산으로 ‘제2의 도약’ 박차

본사 상생홀서 정기 주주총회
당기순이익 129억…흑자 전환
하반기 양산…내수·수출 병행

본격 양산 1년만에 흑자를 기록한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는 내년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되면 내수와 수출을 병행한 획기적인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GGM은 30일 오전 10시 본사 상생홀에서 15



개사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2년 사업성과 및 2023년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GGM은 지난해 총 5만 대 생산에 성공하며 당기순이익 129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주요 설비 신설 등 생산 준비에 따른 비용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본격 양산체제에 돌입함과 동시에 흑자 전환을 이

룬 것이다.
이와 같은 GGM의 당기순이익 129억 원은 그동안 적자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냄과 동시에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GGM은 이날 주총에서 2022년 주요 사업성과로 5만 대 생산 목표 달성과 최고 품질 확보, 안전한 상생 일터 기반 조성, 품질 환경 안전 등 3대 분야 ISO 인증 획득, 품질경영 대상 등을 꼽았다.
2023년 사업추진 과제로는 제2의 도약을 위한 차질 없는 전기차 생산 기반 구축, 최고 공정

및 부품 품질 실현, 안전한 친환경 무재해 사업장 달성, 소통 협력의 상생 일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GGM은 올해 4만 5,000대 생산, 가동률 98%, 합격률 95%, 출고 직행률 92% 달성과 더불어 전기차 생산을 위해 올 상반기에 설비 설계 제작을 완료한 뒤 하반기인 11월에서 12월 중에 설비 설치 및 시운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GGM은 2024년 상반기 전기차 시험생산에 돌입,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해 내수와 수출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획기적인 제2의 도약을 이뤄낼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전기차 양산과 함께 2교대 인력 운영에 대비한 순차적인 인력 채

용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는 “지난해 5만 대 생산 목표 달성에 이어 내년 전기차 본격 생산을 시작으로 제2의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기까지는 주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이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상생을 실천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해 고객 가치를 창조하고 주주 여러분을 만족시켜드리는 것은 물론 광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광주전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제공

노란우산공제 제도·서비스 개선 해법 모색

중기중앙회, 권익보호위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광주전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란우산공제의 지난해 주요 사업성과와 2023년 신규사업 및 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에 대해 토의가 진행됐다.
주요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가입자를 위한 복지·후생, 자금 조성 법적 근거 마련에 의한 복지사업 적극 실시, 공제금 장기 미수령자 해소

조치 등이다.

지난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올해 2월 재적가입자 167만명(광주·전남 9만명)을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2022년 9월 발족한 광주·전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는 노란우산이 고객 중심적인 제도로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가입자의견수렴, 복지서비스 신설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이 이뤄지고 있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정용기 전남대 교수, 정관호 조선속대표를 비롯해 광주전남 유관기관 및 법률전문가, 가입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정용기 위원장은 “3교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우산공제가 가입자의 생계안정에 앞장서고,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가입자 복지증진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지역 업계와 전문가의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창호 광주전남본부장은 “위원회 운영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가입자의 편익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광주 제조업 체감경기 6분기 연속 기준치 하회

광주상의, 2분기 기업경기전망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 지수가 지난분기 전망치에 비해 다소 높아졌지만 6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침체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12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BSI(기업경기실사지수, 기준치=100) 전망치가 ‘92’로 집계됐다.
이는 금리인상 장기화와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정책에 따른 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데다 미중 무역갈등 고조에 따른 불확실성까지 확대되면서 지역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개선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실적은 ‘59’로 원자재가격 상승과 수입 불안, 수출입 부진 등으로 기준치(100)를 밑돌며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2분기 업종별 전망은 ‘식음료(120)’, ‘고무·화학(109)’, ‘철강·금속가공(108)’, ‘IT·전기·가전(111)’ 업종은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그 외의 업종은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비금속광물(50)’, ‘기계·금형(84)’ 업종은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와 납품처 발주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경기하락을 전망했으며 ‘자동차·부품(69)’ 업종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수요감소와 내수 및 수출 부진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체감경기가

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106)은 글로벌 경기회복 움직임과 신제품 출시 등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경기 호전을 전망했으나 중소기업(89)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과 매출 하락 우려로 체감경기가 전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리스크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원자재가격 상승(59.5%)’, ‘물가·금리인상(43.8%)’, ‘고물가로 인한 소비둔화(38.0%)’, ‘원부자재 수급불안(19.8%)’, ‘주요수출국 경기침체(17.4%)’, ‘지정학적 리스크(10.7%)’ 순으로 응답했다. /이연수 기자

지난해 국토면적, 여의도 4배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토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4배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지적통계를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토지·임야대상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10만443.6㎢(3만9,514필지)로 전년보다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분은 여의도 면적(2.9㎢)의 4배에 해

당하는 규모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북의 면적이 1만9,036㎢로 가장 크다.
국토의 19.0%를 차지한다. 강원 1만6,830㎢(16.8%), 전남 1만2,361㎢(12.3%)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면적이 작은 광역자치단체 1~3위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이었다. 서울(605.2㎢)이 전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0.6%다.
10년간 토지 면적 변화를 따져보니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2%) 감소했다.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주요소유지·창고용지)은 872㎢(22%) 늘었고,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도 515㎢(17%) 증가했다. /연합뉴스

LH-해남군, 주거플랫폼사업 시행협약

공공임대주택·생활SOC 등 결합

작은학교 재생·주민 삶의 질 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본부는 30일 해남군과 북일면 내 주거플랫폼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거플랫폼사업은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생활SOC+일자리’ 등을 패키지로 공급해 기존 주민 및 신규 유입 인구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 생활거점 조성 사업이다.
해남군 북일면 주거플랫폼사업은 북일초등학교의 전학 가구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2호와 생활SOC(마을북카페, 다목적체육관 등) 건립 운영 및 입주주민 일자리를 앞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LH와 해남군, 북일면 주민자치위가 민·관·공 거버넌스를 구성해 지난해 8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10월 LH와 해남군 간 체결한 기본협약을 시작으로 폐교 위기의 북일초등학교 살리기에 공동 노력 중이다.
이번 시행협약은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LH와 해남군의 역할 분담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공공임대주택 12호 공급 및 운영·관리를, 해남군은 생활SOC의 적기 건설·운영,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행·재정 사항 지원 등의 업무에 나서기로 했다.
LH의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협약에 따라 해남군 북일면 일원 4,300㎡에 민간에서 주택을 건축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4월에 LH청약센터에서 매입약정 공고 및 접수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 착공 후 내년 상반기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광은-동구청,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

관내 65세 이상 시니어 대상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시 동구청에서 임택동구청장과 박종춘 광주은행 부행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은행과 동구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분

기마다 광주은행에 금융사기 피해 사례 안내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금융앱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통해 금융사기의 다양한 유형 및 대처 방법과 더불어 스마트폰을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전남 제조업-비제조업 ‘희비’ 엇갈려

내달 업황전망 73p…매출도 ↑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3p 하락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사업체들 또한 내달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3월 제조업 업황BSI는 71p로 전월과 동일했으나, 다음달 업황전망BSI는 73p를 기록하며 경기 개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 매출BSI는 84p로 전월대비 12p 상승했으며, 내달 매출전망BSI 또한 79p로 전월에

비해 5p 올랐다.
경기 개선에 3월 중 제조업 신규수주BSI도 전월대비 9p상승한 81p를 기록했으며, 다음달 신규수주전망BSI도 82p로 전월대비 11p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3월 비제조업 업황BSI는 66p로 전월대비 1p 하락했으며, 내달 업황전망BSI도 66p로 전월대비 3p하락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을 반영하듯 3월 중 비제조업 매출BSI는 77p로 전월대비 4p상승했으나 다음달 매출전망BSI는 76p로 전월과 동일했다.
자금사정BSI는 73p로 전월대비 2p 상승했으나, 내달 자금사정전망BSI는 74p로 전월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오지현 기자